

지역 소식통

정읍시, 여름철 재해 대비
축사 시설 선제 점검

정읍시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선제적인 축사 시설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여름철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축 폐사와 농가 생계 위협을 사전에 꼼꼼히 차단하고자 이번 현장 점검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2025년) 정읍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돼지 32건, 닭 31건, 오리 2건 등 총 6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로 인해 돼지 660마리, 닭 7만 505마리, 오리 1014마리 등 총 8만 2674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재해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과거 피해 농장과 저지대, 하천 주변 축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축사 내 배수 시설, 전기 설비, 지붕·벽체 안전 상태, 방방 시설 등이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보수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안군, 농업 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2곳 선정

부안군은 2026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에 남부안농협과 하서농협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민기 인력 수급 안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개소당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유희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남부안농협과 하서농협은 해당 사업을 통해 농업 근로자용 기숙사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벚꽃축제 21만명 인파 대항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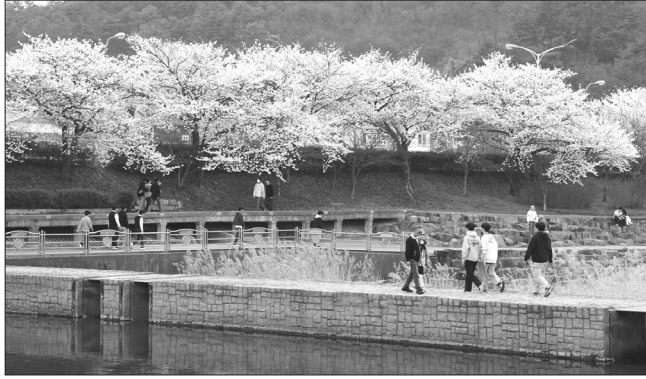
축제기간 2억5000만원 현장 소비 일으켜... 소상공인 매출 증가·체험형 축제 입증

정읍시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개최한 '2026 정읍 벚꽃축제'가 21만 5,000여명의 상춘객을 유치하고 2억 5,000만원의 현장 매출을 달성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축제는 3일 내내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공연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병행해 인파가 몰리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직결되는 '체험형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축제 기간 정읍 나들목(IC)에서 내장상동 교통공원에 이르는 정읍천 벚꽃로 일원에는 총 21만 5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벚꽃이 만개한 절정 시기와 행사 일정이 맞아떨어지면서 인파가 몰려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방문객 수는 곧바로 현장 매출로 이어졌다. 3일 간 먹거리 트럭(푸드트럭)과 판매대는 총 2억



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지역 제과점(베이커리)과 후식(디저트) 가게들이 직접 참여한 빵 판매대를 비롯해 추로스 등 먹거리 자원이 상춘객들의 지갑을 열게 했다. 시는 이번 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행사장 내부에만 머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성동, 연지동, 내장상동 등 축제장 인근 상권으로 이어진 방문객의 이동 흐름과 소비 규모를 정밀하게 분석해 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파악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중동 상황 대응 체계 풀가동... 민생경제 안정 '총력'

특별 전담 조직 구성... 민생물가안정반·석유가격안정반·기업운송지원반 편성

정읍시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대응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민생물가안정반, 석유가격안정반, 기업운송지원반 등 3개 반을 편성해 민생 물가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에는 일자리경제국을 중심으로 비상경제 대응 특별 전담 조직(TF)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5개 부서 7개 팀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유지와 현장



중심의 의견 청취 확대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우선 유가 급등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전면 확대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간 부문 역시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5부제 자율 참여를 적극적으로 당부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보건복지부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 공모 선정

사업비 5000만원 확보... 퇴원환자 일상회복 지원 박차

고창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 조성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간집'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한 고령자나 환자가 자택으로 복귀하기 전, 단기간 머물며 일상생활 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주택이다. 군은 이번 확보한 5,000만원의 예산은 대신면 예비군대

대 유희 사무실을 리모델링 계획이다.

중간집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방문건강관리를 비롯한 보건 의료 외에도 방문 목욕, 이불 빨래 지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 지원하여 대상자의 일상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고창=김영성 기자



RE100 국가산단으로 전환 촉구

부안군민 3만 2617명 서명... '새만금 부안지역 국가산업 단지 지정해'

새만금 부안지역 관광레저용지와 농생명용지를 RE100 기반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안군민들의 요구가 정부에 공식 전달됐다.

새만금RE100국가산단부안유치범군민추진위원회(이하 알부유추진위)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대신해 면담에 나선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을 만나 부안군민 3만2,617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알부유추진위 공동위원장단이 참석해 새만금 부안지역 관광레저용지와 농생명용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필요성과 RE100 산업단지로서의 적합성을 설명했다.

공동위원장은 "새만금 인근 지역 가운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전력 생산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부안이 유일하다"며 "위도 앞 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계획간척단지 일원에서 부안 주민들이 참여하는 육상 태양광 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산업용수 또한 풍부해 RE100 국가산단으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새만금 내 군산과 김제 지역 산업단지는 산단 조성을 위해 추가 매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부안지역 관광레저용지와 농생명용지 약 800만 평은 이미 매립이 완료돼 즉시 공

장시설 조성이 가능한 상태"라며 "이 같은 여건을 갖춘 부안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월세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추진위원회 설명을 듣고 보니 RE100 국가산단으로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부안군민의 뜻과 함께 설명하고 서명부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면담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민 실장은 공동위원장의 설명을 메모하며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는 등 국무총리와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알부유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초 새만금 부안지역 관광레저용지와 농생명용지를 국가산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범군민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부안군민 160여 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끝기대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전체 군민 4만7천여 명 가운데 3만2,617명의 서명을 받아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등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국무총리실을 통해 청와대에 서명부를 최종 전달하며 새만금 부안지역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3년 연속 우수기관 영예... 세무행정 우수성 인정 받아

고창군은 전북도가 주관한 '2026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군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세무행정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도내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세정을 확충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세무조사 실적, 마을세무사 운영, 체납자 채

권 확보 등 2개 분야 14개 평가 항목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고창군은 우수한 세무행정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군부 최우수기관 선정과 인센티브 11백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고창군은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고창=김영성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